

신행 소식

“대기업과 소통해 파트너십 형성해야”

날마다좋은날, 10월 28일 불교사회적경제 포럼 열어

대기업의 사회적경제 지원 현황을 알아보고 이와 연계해 불교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포럼이 열렸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본부장 박주언)는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4 불교사회적경제 소셜 임팩트 포럼-불교사회적경제, 기업 사회공헌전략과 통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와 대기업 사회공헌팀의 협력으로 이뤄진 첫 행사다.

포럼에서는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과 사회적경제 파트너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밖에 조미현 SK행복나눔재단 팀장 김성철 KDB 대우증권 부장, 최재호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차장이 각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 케이스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도현명 대표는 발표에서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손을 잡기 위해서는 수혜자와 지원자가 아닌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규모는 비교가 안되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 또는 아이디어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 대표는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성공한 해외 사례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는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4 불교사회적경제 소셜 임팩트 포럼-불교사회적경제, 기업 사회공헌전략과 통하다’를 개최했다.

를 제시했다.

GE(제너럴일렉트릭)는 사회적기업인 엠플레이스 이노베이션과 손을 잡고 인도 영아사망률 해결을 위해 포켓 형태의 저렴한 인큐베이터를 공급해 인도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그라민 그룹과 유럽 화학회사인 바스프는 아시아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기 퇴치를 위해 유통망과 기술력을 합쳐 모기장을 공급했다.

도 대표는 “대기업은 연 3조원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계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과 소통하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면 사회적기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나 기자

182년 만의 윤구월... 사찰은 공덕쌓기 중

전국 사찰 윤9월 맞아 예수재·삼사순례·가사불사

올해는 ‘윤9월’이 낀 해다. 양력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29일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조사로는 이번 윤9월이 1832년 이후 처음이다.

음력에서 한 달은 29일, 1년은 354일가량이다. 양력 기준 365일보다 약 11일이 모자란다.

달이 지구를 12번 돈 뒤에도 11일쯤 더 지나야 1년이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달을 기준으로만 시간을 가능할 경우 여름에 눈이 오고 겨울에 무더워지는 등 계절과 어긋나게 돼 농사에도 지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더 넣어 낱짜를 조절하고 이를 ‘윤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윤달을 복과 공덕을 짓는 달이라 보고 있다. 윤달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기보다 나와 남을 위해 복덕을 쌓는 시간으로 승화시켜 왔다. 윤달은 우리에게 텀으로 주어진 비일상의 시간이기도 해 평소 부족했던 마음공부에 힘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으로 옮기는 나날이 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윤달의 대표적인 불교의례는 생전예수재·삼사순례·가사불사가 있다. 이 불교의례는 기록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며 보다 큰 공덕을 실천하도록 한다.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전예수재’는 자신의 죽음을 내다



서울 조계사는 11월 14일까지 승려노후복지기금을 마련을 위한 생전예수재를 거행하고 있다.

윤달은 ‘복과 공덕 짓는 달’

텀으로 주어진 시간에

부족했던 마음공부 힘써야

보면서 소홀했던 자기수행을 점검하고 선행을 발원하는 의례이다. 사찰 3곳을 순례하며 죄업을 씻는 ‘삼사순례’는 세 곳의 절을 밟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보를 찾아가는 길이 곧 자신의 참마음을 찾아가는 자리이자 부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발원과 성찰의 순례다. 출가수행자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가사불사’는 삼보를 섬기며 불교를 꽃피워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공덕이 큰 보시의 하나다.

이번 윤9월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윤달 불교의례를 실시해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는 9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생전예수재를 거행한다. 승려노후복지기금을 마련을 위한 행사로 8회에 걸쳐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등 육바라밀 실천을 서원하는 법회와 차와 향, 꽃, 쌀, 과일, 등공양을 하는 육법공양고 갖는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9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생전예수재 법회를 거행한 통도사는 6재(11월 9일)와 회향일(11월 16일)에 (전)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인 법산 스님과 전계사 해남 스님의 법문을 연다. 또한 부처님

금관가사와 자장율사의 친척가사를 봉안하고 있는 통도사는 스님들에게 가사공양을 올리는 가사불사를 오는 11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스님을 지정해 공양할 수도 있으며 대가사와 오조가사 등을 올릴 수 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생전예수재를 지낸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지운)는 11월 8일 회향법회를 연다. 법회는 서산간월암에서 합동 수륙대제로 거행한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11월 17일까지 가사불사를 진행하며, 스님들의 법계에 맞춰 가사를 올릴 수 있다. 또한 마곡사(주지 원경)는 11월 15일까지 생전예수재를 연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1월 16일까지 생전예수재 및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펼친다. 9월 29일 입재법회를 시작한 국제선센터는 11월 9일(6재) 통도사 율주해남 스님을, 11월 16일(막재)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법문을 연다. 또한 6재때는 통도사 율주해남 스님을 전계사로 보살계 수계산림을 거행한다.

금척총림 범어사(주지 수불)는 11월 14일 산청 대원사, 마산 의림사, 창원 성주사로 삼사순례를 떠난다. 봉선사는 19일 강화 전등사·보문사·정수사로 순례를 간다. 부산 해운정사는 11월 15일 해운정사와 울진 불영사 경주 흥륜사를 도는 삼사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이밖에 삼천사(회주 성운)는 11월 10일 지장재일을 맞이해 생전예수재와 조상천도제 및 신도수계식을, 수효사는 11월 8일 생전예수재를 거행한다.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제6회 나란다축제 수상자 발표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시상식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지난 9월 20일 실시한 제6회 나란다축제 종교·군장병 부문과 사관생도 및 경찰대생 부문을 비롯해 외국인·일반부·단체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경찰대생 부문 사관생도부문의 대상은 손민정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차지해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 최우수상은 민경철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와 박인호 생도가 차지해 각각 80만원을 받는다.

군장병 부문에서는 박형민 상병(육군 제25사단 본부대)과 김선호 병장(육군 21사단) 공동으로 대상을 수상,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100만원 씩을 받는다.

중등부문과 고등부문은 금정중학교

2학년 서진혁 학생과 지평고등학교 손지원 3학년 학생이 각각 대상을 차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단체상 대상은 육군사관학교가 차지했으며, 백익장 및 사생대회부문에서는 동원정사 소속 권소담·유수빈 양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외국인부문은 캄보디아 출신인 ‘Phork Phynom’ 씨가 대상 수상자로 선정,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밖에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에서는 ‘SoulBeat’ 팀이 대상을 수상, 장학금 200만원을 받게된다.

한편 나란다축제 시상식은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이어나 기자

“일상속 보살행 실천이 쉼의 이해 도와”

글렌 멀린, 10월 30일 불교상담개발원 세미나서 발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의 깨달음, 심리치료의 통찰’을 주제로 10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해안 스님의 사회를 맡았으며, 밀교수행 전문가인 글렌 멀린 법사가 ‘불교에서의 깨달음’을 주제로, 이문성 융학과 정신분석사가 ‘깨달음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티베트불교학자이자 금강승 수행을 오래한 수행자인 멀린 법사는 깨달음에 대해 인도와 티베트의 여러 성인들이 불교 문헌을 통해 제시한 이론들을 소개했다.

깨달음을 ‘깨어남’이라고 정의한 멀린 법사는 “무지, 집착, 증오에서 벗어나 지혜,

자유, 사랑의 깨어난 상태로 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혜 등의 선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멀린 법사는 깨달음을 이해하는데 인도의 용수(나가르주나)가 말한 세계를 보는 두 가지 입장인 속제와 진제를 소개하며 “사물의 현상적 모습과 그것의 궁극적인 공(空)적인 측면을 모두 이해하고 둘의 균형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멀린 법사는 “이러한 공의 이해는 나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일상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공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실천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해는 그저 지적 이해일 뿐이며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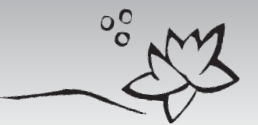
이어나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의 깨달음, 심리치료의 통찰’을 주제로 10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9층탑. 사천왕 점안 대법회 및 사천왕 중창불사 권선



사천왕 건립 중창 불사 권선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신도제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천왕은 삼계(육계, 색계, 무색계)에 속해있는 육계 6천 중 제1천인 사천왕에 거주하는 네분의 천왕을 말합니다. 부처님 법에 귀의한 사천왕은 부처님 도량과 불제자들을 보호할 것을 서원하여 온갖 요망스럽고 싹튼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파사현정의 호법천왕입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쪽을 주관하는 지국천왕은 국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고 남방을 주관하는 증장천왕은 사람들의 성근을 증장시키는 천신으로서 용을 잡고 있으며 서쪽을 주관하는 광목천왕은 천안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옹호하는 신으로서 탑을 들고 있으며 북쪽의 다문천왕은 사람들의 복과 좋은 명성을 사방에 선양하고 격려하는 천왕으로서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을 옹호하는 사천왕을 건립 및 중창불사의 본 백봉사에서는 사천왕 조성 불사를 시작하였으니 부디 불사에 많은 불자들이께서는 동참하시어 풍요를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밝혀 주는 보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시주하시는 분은 사천왕 뒤벽 현판에 가족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 단독으로 불사 및 시주하시는 분은 별도로 접수 받겠습니다.

9층탑 및 사천왕 점안식 봉행

- 일 시 : 불기 2558년 11월 15일 (음, 9월 23일) 토요일 11시부터
■ 장 소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 1길 24번지 백봉사, 극락사
■ 불 사 : 사천왕불사 가족의 100만원, 1인의 10만원 / 9층석탑 1인 10만원
미륵부처님 가족의 100만원. / 관음 / 지장천불전 1인불 10만원
■ 전 화 : 1577-1016 / 054)571-6973, 054)571-1030,
054)571-7497, 054)572-1034
■ 계 좌 : 농협 745082-51-022938 (예금주 : 이종수)

(社) 韓國佛敎曹溪宗 協議會 이사장 이종수
(社) 韓國佛敎曹溪宗 총무원장 대봉
(社) 韓國佛敎曹溪宗 문경 백봉사, 극락사 주지 대봉 합장